

2023년 세계 노동시장 전망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세계 노동시장을 전망해 봄으로써 올해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전망하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독일, 중국 그리고 일본 네 개 국가의 2022년 노동시장 환경을 논의하고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관점에서 2023년 노동시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022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견고한 노동시장이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높은 구인구직배율(구직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함께 거론되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상대적으로 진정세로 들어가는 추세 이후 각국 사정에 맞게 기조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에 더 주목되었던 편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호 2023년 세계 노동시장 전망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함께 각국 고유의 대외적·사회적·경제적 요소가 같이 논의되었다.

미국은 20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견고한 노동시장, 그리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을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경기·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 등으로 2023년에는 실물 거시경제 지표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9.06%로 1980년대 고물가 시대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

선율을 보였다.¹⁾ 2022년 실업률은 약 3.5~3.7%,²⁾ 5월 빈 일자리 수는 118만 5,500개,³⁾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약 6.7%(6월 및 7월)였는데,⁴⁾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22년 미국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하였음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들은 2022년 연말 정점이었던 시점보다는 안정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져서 GDP 성장률 및 고용 등은 2022년 정도의 강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022년 11월에 발표한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에서 2023년 실업률은 약 4.2%, 비농업 급여 고용은 약 14만 3,600명 그리고 실질 GDP는 약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서 2022년에는 각각 3.7%, 49만 2,800명 그리고 1.9%로 추정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노동시장 정책 상황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각각 분점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 27개 주에서 시행될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다.⁵⁾

2022년 독일 경제상황은 2022년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량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2023년 노동시장과 거시경제 역시 방향을 같이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경제전문가 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 등은 2023년 독일 실질 GDP가 -0.2~0.3%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약 6.4~7%일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독일 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은 실질 GDP가 약 -0.5~-0.7% 성장, 취업자 수가 약 0.2% 증가, 단위노동비용(Unit Labour Costs)이 약 5.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23년에 주목할 만한 독일 노동시장 관련 정책 변화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실업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Basic Income Support)의 시민 기본소득(Citizen's Basic Income)으로의 확대이다.

1) FRED(2023), "Consumer Price Index: Total All Items for the United States", <https://fred.stlouisfed.org/> (2023.1.30).

2) FRED(2023), "Unemployment Rate", <https://fred.stlouisfed.org/> (2023.1.30).

3) FRED(2023), "Job Openings: Total Nonfarm", <https://fred.stlouisfed.org/> (2023.1.30).

4)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2023), "Wage Growth Tracker", <https://www.atlantafed.org/> (2023.1.30).

5)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달러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 주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2023년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D.C.가 각각 15.50달러, 13.65달러 및 16.1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2022년 최저임금은 세 차례에 걸쳐 증가하여 현재 12유로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정도보다 작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존재하여 전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⁶⁾

2022년 중국 노동시장은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더 포괄적인 사회보험, 전반적인 작업장 환경 개선, 증가하는 노동쟁의 그리고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대표되는 특징이었다.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역정책 기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나중에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 원고에서는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구(IMF)는 2023년 중국 실질 GDP 성장을 4.4%, 인플레이션을 2.2%(2022년에는 최고 2.8%)로 전망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⁷⁾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중국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다. 첫째,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여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반적 수요위축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혹은 낮은 취업자 수가 전망된다. 둘째, 장기적인 추세로서 자동화 기술로 인해 전통적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스매치로 인한 제조기업의 구인난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계속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 노동 등 유연고용확대 추세에 맞춘 유연고용규범의 안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탄소 생산방식 도입과 높은 소득불평등, 점차 많아지는 노사 간 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된 2023년 노동보장정책에서 분배제도 개선, 고용우선전략 실시, 노동법령 완비,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여성 권익 보호,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적 개방 등이 다루어졌다.

6) Deutsche Bundesbank(2022),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for 2023 to 2025", <https://www.bundesbank.de/> (2023.1.25); Statistisches Bundesamt(2022), "Minimum Wages", <https://www.destatis.de/> (2023.1.25).

7) IMF(2022),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untry Data", <https://www.imf.org/> (2023.1.26).

마지막으로 일본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약 3.0% 정도였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계속 저물가 기조에 있었기에 역사적 맥락에서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구인구직배율은 코로나19 이전의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단, 일본의 경우에는 구인난 문제가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음을 같이 참고할 수 있다. 또한 2022년에는 급작스러운 물가인상만큼 명목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임금이 하락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임금인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전국적 노동조합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레고)는 5%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은 실질소비수준 유지, 2022년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문제 등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수 있다.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취업자 수는 2022년과 유사한 약 6,741만 명(2022년 약 6,726만 명, 약 0.214% 증가), 실업률은 약 2.458%(2022년 약 2.608%)일 것으로 예상된다.⁸⁾

종합하자면 2023년 세계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 혹은 조정기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들 역시 2023년 한국 취업자 수 증가가 2022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전망 기조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번 호 원고를 비롯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조금이라도 노동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높은 불확실성 가운데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8) OECD(2022), “Economic Outlook No 112 - November 2022.: Japan”, <https://stats.oecd.org/> (2023.1.26).

9) 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취업자 수가 2022년 대비 8만 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2022), 『노동리뷰』 2022년 12월호).